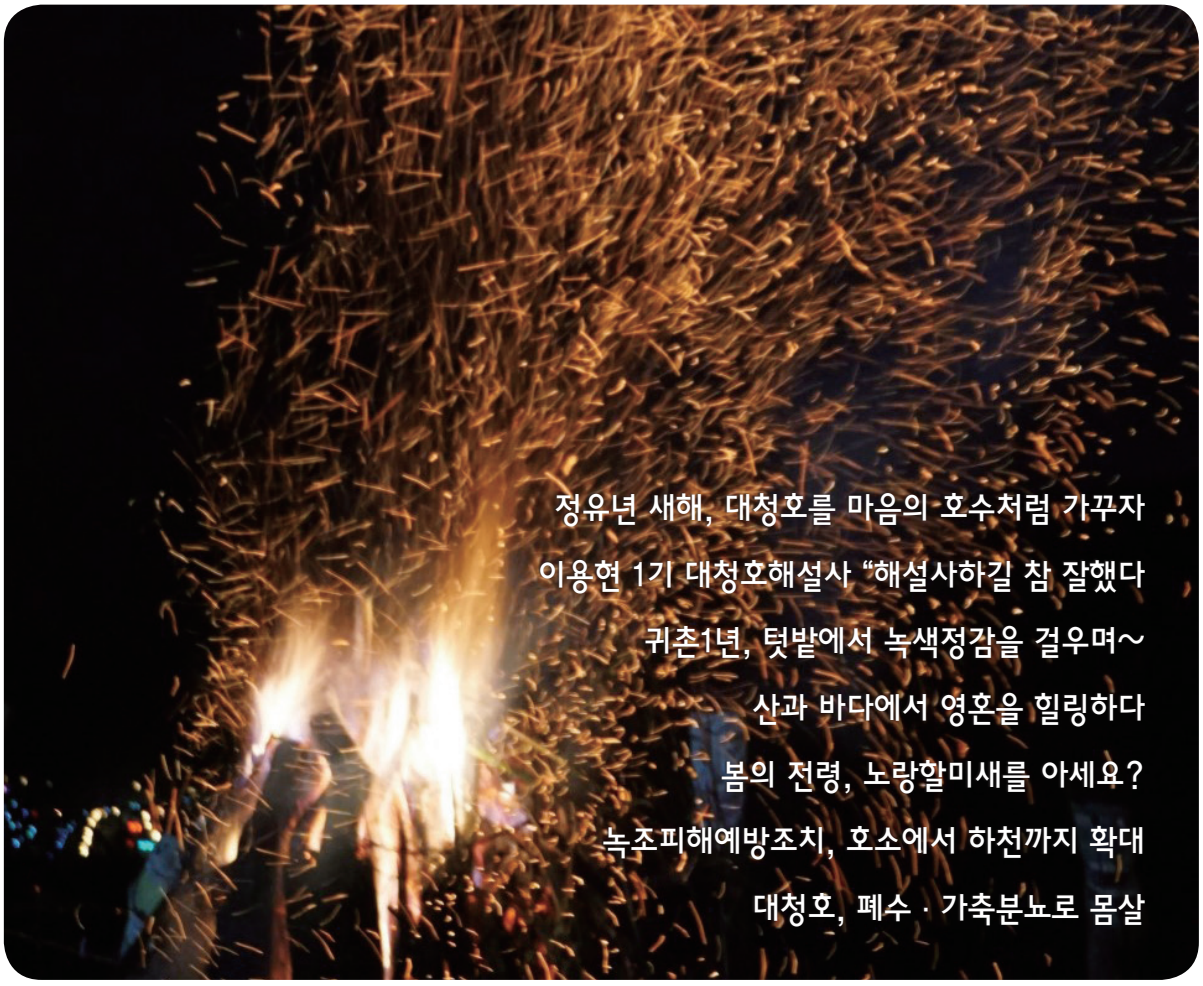
함께 만들어가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대청호 소식

vol.105
2017 01+02월호



정유년 새해, 대청호를 마음의 호수처럼 가꾸자
이용현 1기 대청호해설사 “해설사하길 참 잘했다
귀촌1년, 텃밭에서 녹색정감을 걸우며~
산과 바다에서 영혼을 힐링하다
봄의 전령, 노랑할미새를 아세요?
녹조피해예방조치,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
대청호, 폐수 · 가축분뇨로 몸살

비룡동 정월대보름 장승제

“풍작과 건강을 기원하나이다”

백진선(5기 대청호해설사)

대전 추동길로 들어서자마자 첫 동네 비룡동(줄골).
2차선 양갈래로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 돌장승이 애틋이 마주한다.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 전날이면 어김없이
신나는 풍물 한마당에 땅이 신에게 고하는 지신밟기가 이어지는데
만사형통 태평성대 소지 뒤편에 적은 다양한 소원들이 주렁주렁.
달을 거을린다는 달집태우기에 불이 붙는 순간
하늘닿을 듯 힘차게 치솟는 붉은 불꽃의 경이로움에
환호성이 힘차게 울려퍼진다.

마을안녕과 풍작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담아
한시간 간격으로 오방기[1] 들고
신명나는 풍물가락 마을우물터를 돌아 제를 올린다.
장승가슴팍 짚으로 엮은 오쟁이에 음식을 넣어 두는 장승배기.
옛날옛적 배고픈 시절, 굶주린 배를 채우고 가라는 나눔의 시작인 듯.

문헌으로 전해내려오는 비룡동 정월대보름장승제는 250여년간 소중히 이어진다.

1 오방기 : 다섯방위를 색깔로 표시하여 사용한 깃발
동쪽–청색, 서쪽–흰색, 남쪽–적색, 북쪽–흑색, 중앙–황색

CONTENTS

대청호 소식
2017 01+02 vol.105

2 이사장 신년사
정유년 새해, 대청호를 마음의 호수처럼 가꾸자

4 신임 네트워크 대표 · 활동가 새해인사
“2017년을 다짐합니다”

8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51
[인터뷰] 1기 대청호해설사 이용현 대전교육정보원장

12 포토에세이 photo–essay 17
“산과 바다에서 영혼을 힐링하다”

16 기획특집 … 귀농귀촌이야기 11
귀촌 1년, 텃밭에서 녹색 정감을 걸우며

20 대청호생태이야기1
봄의 전령 노랑할미새

23 정책&이슈
2017 달라지는 환경정책

26 16차 정기총회
대청호보전운동본부 16차 정기총회 성료

30 대청호유역하천센터 ‘현안을 짚다’
대청호유역하천센터의 2016년을 돌아보며

32 본부 사무처 · 네트워크 활동보고

34 대청호 NEWS & NEWS

37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소식 vol.105

발행일 2017. 2. 15
발행인 윤여표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윤여표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이성숙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930-7340~1
전 송 042)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 · 인쇄 월간 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51 2층
042)320-7151

표지이야기 주민 소원성취와 한해 무사평안을 기원하는 비룡동 줄골마을 달집태우기.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하늘에 맞닿아 다양한 희망들이 몽땅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린다. 2017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파이팅!!
(사진제공 : 백진선 대청호해설사)

윤 여 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사장 / 충북대학교 총장

정유년 새해,

대청호를 마음의 호수처럼 가꾸자

정유년 붉은 닭띠 해를 맞아 덕담을 겸해서 새해 인사와 안부 전합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많은 도전과제들이 거대한 산처럼 서 있습니다. 세상사 쉬운 일이 없다고 참으로 쉽지 않은 현실 앞에서 종종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난마처럼 뒤엉킨 문제를 들고 저는 종종 대청호반을 드라이브합니다. 호수의 크기만큼 아름다운 풍치의 경관이 다양하고 깊은 맛을 주는 대청호는 그럴 때 내 마음의 호수이고 오아시스로 다가옵니다.

대청호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요즘처럼 절감하는 때가 없습니다. 자연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대청호를 잘 가꾸는 마음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한반도 중심에 거대한 생명의 젖줄을 이룬 대청호를 잘 보전하고 지키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는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대청호가 갖는 가치를 생각해 보면 대청호를 지키는 일에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다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공호수로 조성된 대청호수는 그 규모도 규모려니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 제공하는 유무형의 편익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젖줄이요 생명의 저수지입니다. 대청호바닥이 갈라지고 대청호가 탁하게 오염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두 번째 대청호를 잘 보전하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대청호를 직접 가든 안가든 우리는 유무형으로 대청호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게 물이 주는 무형의 값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대청호를 무엇보다도 조화롭고 청결하게 가꾸면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의 공원이 되고 여백의 정원이 됩니다. 집안 정원을 잘 가꾸어 놓으면 드나드는 발걸음이 경쾌하고 좋듯이, 청정 대청호는 우리 심령에 생명수를 붓듯이 청량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귀한 생각과 행동을 대청호에 투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접근도 귀하다고 하겠습니다. 귀중함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 가치를 알 때 빛납니다. 통상 없어져야 귀한 것을 안다고 하듯이 대청호의 고귀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대청호 보전에 대한 공유 활동이 전개되어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유 활동이 대청호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호수를 내 집 가꾸듯이 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자연스럽게 승화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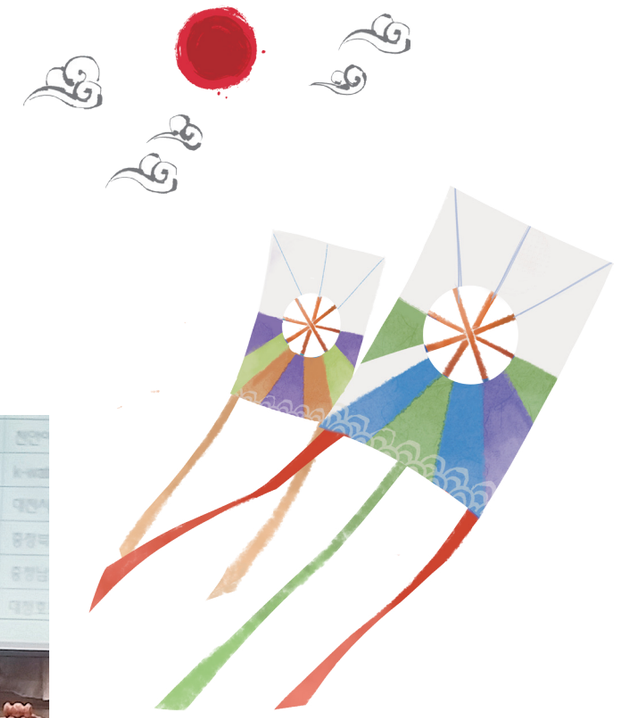
그간 세월의 때가 고스란히 대청호에 내려앉으면서 대청호는 마치 인공호수가 아닌 자연호수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굽이쳐 돌면 절경이고 또 다시 전개되는 시야는 감탄사를 절로 불러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 그간 개발의 상흔도 그대로 남아있어 눈살을 찌푸리는 지점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순차적으로 정화해 대청호가 온전한 모습을 되찾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기에 당국도 주의 깊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청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을 좀 더 자연모습 그대로 유지 보전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난개발에 대한 방어조치를 넘어서서 호수와 마을이 그림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마치 스위스 레만호 정경 같은 풍경이 되도록 하는 경관 가꾸기도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삶과 병존하는 호수는 더욱 약동하는 활력을 주고 정취를 가져다줍니다. 대청호가 소중한 것은 호수자체의 미학을 넘어 삶의 귀한 터전으로서도 호수의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마을을 특색 있게 정리정돈하면 새로운 테마마을로서 특화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이 없는 대청호가 되리라는 기대입니다. 늘 사람의 발길과 숨결이 느껴지는 호수일 때 대청호는 진정 우리 곁의 우물처럼 우리 삶을 지켜주고 미래희망을 윤택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대청호에 정갈하고 맑은 마음을 드리우면서 보전이라는 슬로건에 더욱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유년 새해가 대청호를 마음의 호수처럼 가꾸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7년을 다짐합니다”



2017 신임 네트워크 대표 새해인사

청주네트워크 **박노일** 대표(청주KYC)

대청호는 청주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민들의 생명수입니다. 소중한 식수원인데도 매년 대청호의 수질 오염에 대한 경고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증상으로 인해 실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시작으로 직, 간접적으로 대청호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은 수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여름철 녹조는 해가 가면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대청호주변에는 생태계 교란종인 외래동식물이 퍼지고 있어 안타까움이 커집니다. 가까운 일본의 비와호에서도 생태계교란종이 토착화되어 문제가 되면서 지자체와 주민들과의 협력으로 퇴치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역시 이를 본받아 ‘본격적인’ 생태계 교란종의 퇴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근본적인 방향은 언제나 대청호의 깨끗한 수질에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직을 수행하며 운동본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의 협력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네트워크 **김정민** 대표(대전YWCA)

2017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네트워크 사무국을 맡으며 대전YWCA는 역량을 모아 깨끗한 대청호 보전를 위해, 그리고 인근 농촌과 도시의 건강한 네트워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우리 기관의 슬로건과 함께 ‘물은 생명’이라는 가치와 철학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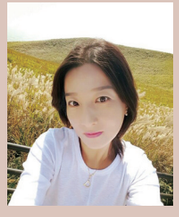
천안아산네트워크 **공정해** 대표(천안KYC)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의 가슴에 와 닿았던 글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며,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7 지역네트워크 활동가 새해인사



무주네트워크 **전선화** 팀장

아까운 16년도가 훌~쩍 지나버린 지가 엊그제 같더니 어느덧 올해 2017년도 빠르게 흐르고 있네요. 한해가 바뀔 때마다 저는 다이어리에 꼼꼼히 새해 목표를 세워두는데요. 늘 작심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다짐이 있고, 새로운 꿈이 있다는 건 언제나 설레임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에게 주어진 일들에 열중하며, 맑은 대청호를 만들기 위해 회원마을 주민들과 더 노력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래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처럼” 대청호 가족 여러분 항상 웃을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2017년도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나 목표가 헛되이 되기 않도록 모든 일들이 슬슬 잘 풀리는 올해가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금산네트워크 **노금선** 팀장

대청호라는 이름의 소속된 가족여러분 늦었지만 새해인사 올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지난 4년간의 팀장으로서 제가 한일이 뭐가 있을까 뒤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그러다가 지난 일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의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107년 정유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초심, 다짐, 결의, 소통이라는 단어가 절실하다는 것이었어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기관과 사무국, 회원단체와 마을 모두와 소통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내 고장 환경보전에 끝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의 생명줄 금강의 줄기가 좀 더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지기를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 **한유정** 팀장

해마다 다이어리 앞장에 적어놓았던 계획들, 작심삼일로 끝나는 다이어트와 어학공부가 늘 포함되었었는데 올해는 어쩌다 보니 그마저도 세우지 못하고 지났습니다.

항상 꿈꾸자고, 미래를 설계하자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아이들 돌보고 경제 이야기를 주로 하는 부부사이가 슬퍼서 작년부터 남편과 함께 부부독서모임을 시작했지요.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나눈 책이 구본형의 "마흔세 살에 다시 시작하다"였습니다. 올해 내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좋은 씨앗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하루를 보내도록 해야 한다. 날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시간이 쓰일 곳을 마음대로 배분하며, 그 일의 가치가 빛나는 일을 하고, 스스로의 삶을 즐겨라. 삶 자체가 유혹이 되게 하라." 2017년은 훌륭한 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대전네트워크 **박소현** 팀장

2017년 새롭게 대전네트워크 사무국에서 실무를 맡게 된 박소현 팀장입니다. 대청호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해 행사 참여로만 접하였으나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네트워크 단체들과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즐거운 네트워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하류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보따리사업을 통한 대청호사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역할과 상류지역과는 물과 환경을 사랑하는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질교육을 진행하여 상하류 서로에게 힘이되는 연결고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천네트워크 **오희진** 팀장

새로 시작하는 2017년!! 2017년 구직자가 뽑은 1위 사자성어는 "득의지추"[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질 좋은 기회] 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바라던 일이 술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옥천네트워크의 회원단체, 회원마을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옥천네트워크에 도움이 되는 활동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차고 새로운 한해를 위해 화이팅!!

보은네트워크 **이화진** 팀장

어느새 새 달력을 책상위에 놓아두고 2017년 새해에 대한 기대와 셀렘을 품고 한해의 첫발을 시작합니다. 저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좋아 합니다. 기분 좋은 시작으로 기분 좋은 결실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보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차근차근 새 달력에 평소 애정표현에 인색했던 가족과 지인과 동료에게 조금씩 예쁜 말과 예쁜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해 갈 것이며 지금까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며 책을 피해 왔던 내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기 위해 책을 가까이 두고 운동 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힐링으로 2017년 한해를 메워나갈 것입니다.

모두모두 행복만 가득한 한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네트워크 **정미진** 팀장

2017년 새해 새롭게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게 된 청주KYC 정미진 팀장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청주KYC에 새롭게 시민사회운동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으로써 아직 모르는 것, 신기한 것 많아 두려움이 앞서지만, 지금까지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 열심히 활동해오신 분들을 따라 저 역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문의에서 나고 자라셔서 어릴 때 부터 외할머니댁을 가면 어김없이 대청호에 가족들과 놀러가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청호와 인근마을이 저와 같이 따뜻하고 맑은 곳으로 기억되도록 적극적인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모두들 건강하세요.

임정미 (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교육국장

[인터뷰] 1기 대청호해설사 이용현 대전교육정보원장

“대청호 맑은물지킴이, 대청호해설사 하길 참 잘했다”

500여만명의 생명수 대청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대전교육을 책임지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환경교육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선생님들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대전교육의 중추역할을 담당해온 이용현 1기 대청호해설사를 만났다.

올해 2월말까지 대전교육정보원장을 끝으로 40년 이상 걸어온 교육자의 길을 마무리하는 그와의 인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단체에서 대청호물환경교육전문가를 양성하던 첫해에 당시 동명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었던 이용현 해설사가 지원하면서 소중한 인연은 시작되었다.

특히 동명초등학교는 대청호를 학교정원으로 활용하는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기에 충분했으며 학교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로서의 소중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당시의 경험담을 쏟아낸다.

대청호해설사로서 학교를 찾는 이들에게 대청호를 보여주며, 물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20여명의 교직원을 모집, 대청호물사랑홍보단을 조직하여 우리단체와 함께 퇴근후 늦은오후시간동안 대청호둘레잇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교사가 먼저 알아야 학생들에게 전달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홍보단에 참여한 교직원의 열의는 매우 높았다. 매 차시마다 대청호 주변풍광에 대한 감동을 시작으로, 각 지점마다 특성화된 주제와 내용이 담겨있음을 인지하며,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기름범벅 바위를 닦아본 사람은…

대청호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산업화가 초스피드를 달리던 30여년전, 일본으로 교사연수를 떠났던 경험담을 꺼내놓으신다.

홋카이도 시골마을에서 3일동안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그날그날 먹을만큼만 요리해서 버리는 음식물을 거의 없게 하는 습관을 비롯해서 하수구에 아무거나 투척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리집 물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마을 하천을 깨끗이 가꾸는 행위 등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 실천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에 따라 환경오염의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법. 나는? 우리는? 우리학교는? 우리사회는? 의문과 해답이 오버랩되며 끊임없이 감동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주민의식이 뛰어난 이유중 하나가 꾸준한 환경교육 덕분이라는 현지인의 설명을 통해 환경교육이 그리 어렵거나 재미없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그러하기에 이용현 해설사는 환경교육이 곧 희망이라고 입버릇처럼 설명한다. 그의 철학이 대청호해설사 양성교육 참가로 이어지게 하였고, 그 의지가 대청호홍보단 등과 같이 교원들의 대청호사랑, 생명수의 소중함을 홍보하는 환경교육으로 맥을 잇게 하는 근원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정성어린 환경교육의지는 동명초등학교장, 은어송초등학교장, 가오초등학교장으로 부임할때마다 학교교육과정에 세심하게 녹아들었다.

학생들의 환경동아리활동 지원은 물론, 숲과 물을 주제로 한 생태봉사단 활동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환경의식이 뛰어나게 높아졌다.

학생들의 환경동아리활동에 학교예산을 아낌없이 배정하는데 따른 어려움도 컸을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그는 '직접체험'에 둔다. 2007년 태안기름유출 사고 당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기름범벅된 바위를 닦아본 사람들, 바닥에 붙은 껌을 떼거나 침을 닦아본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 행위 자체가 환경교육이기 때문에 하천이나 바닷가에 놀러갈때는 대청결국민운동이 필요하고, 가족여행시에는 진정성을 담은 봉사활동 등 그러한 소소한 환경교육활동이 전개된다면 인원을 동원하는 요식적인 교육은 필요치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교육이 필요

"학교에 양호교사와 영양교사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활동가에게 이용현 해설사는 바로 해답을 내놓는다.

"양호교사는 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해주는 실천가라면, 영양교사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가능하게 하는 사람이죠."

어떤 자리가 더 중요한 직책이냐를 논하자는게 아니라, 환경오염은 발생하고나서 치유하는 것보다,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긴 시간동안 강조했다. 누구나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으면서 퇴직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한평생 대전교육을 책임지면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매진한 이용현 해설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게 무엇인지 질문하니 '정직'이 좌우명이라며 청렴한 삶을 첫 번째로 손꼽는다.

어지러운 시국의 발단도 정직하지 못함으로 기인한 것이라며, 미래세대들에게 정직성이 가장 중요함을 생활속에서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는 주변에서도 정평이 나있다. 그럼으로 동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정직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기에 아직은 우리의 삶이 희망적임을 믿는다고 강조한다.

"대청호생태여행, 착한여행, 함께 하실래요?"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공모부문 2년 연속 전 부문 대상 수상' 대전교육정보원 본관건물에 길게 늘어진 플래카드문구가 눈에 띈다. 어느 공간이든 상하간의 원활하고 유연한 소통, 연대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신바람나게 실천했던 그는 퇴직후 몇차례의 여행을 기획하고 있는데 착한여행, 생태여행을 주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청호환경교육과 생태여행을 접목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이용현 해설사. 어릴적 꿈이었던 선생님으로서의 소임을 마치면서 그 과정중에 '대청호해설사하길 참 잘했다'며 앞으로의 왕성한 대청호지킴이활동을 기약했다.

글 **박병춘**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산과 바다에서 영혼을 힐링하다”

작지만 위대한 생명 앞에 경의를!

1

2

1, 2

바닷가를 찾아 새해 새 소망을 담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바다는 저의 모든 것을 품어주고 용기를 줍니다. 버리고 싶은 것들, 지우고 싶은 것들을 다 받아주는 바다. 그리곤 그 빈자리에 새로운 양심을 심어주는 바다이기에 바다는 제게 늘 경이롭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산은 어떤가요? 낮은 곳에서 영혼을 맑게 하는 위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생화인데요. 이 꽃의 이름은 ‘둥굴래’입니다. 이른 봄 어린잎과 뿌리줄기를 캐서 어린잎은 물에 오래 담가 우려낸 다음 나물로 먹으며, 뿌리줄기는 삶거나 구워먹거나 녹말을 만들기도 한다지요. 쓴맛이 없고 단맛이 조금 도는 뿌리줄기를 가을에 캐서 그늘에 말린 것을 위수 또는 위유라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자양 · 강장 · 해열 등에 쓴답니다. 뿌리줄기를 가루로 만들어 타박상에 바르기도 한다는데 그 쓰임새도 다양해서 우리네 사람들에게 참으로 유용한 식물이네요.

3

3, 4

썰물이 되자 해변 모래사장에 작은 모래구슬이 장관을 이룹니다. 작은 구멍마다 내 발자국에 놀라 생명들이 은신하고 있겠지요. 모래게 얼굴을 보고 싶어 한참을 기다려도 저의 숨소리라도 듣고 있는지 모래게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백사장에 펼쳐진 모래구슬의 향연에 발자국도 조심조심,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미꽃, 백두옹이라고도 하지요. 뿌리는 굵고 진한 갈색이며 전체에 흰 털이 빽빽이 나 있습니다. 흰 털로 덮인 열매 덩어리가 하얀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데다 밑으로 구부러진 꽃대의 모습이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를 연상시켜 할미꽃이라는 이름이 생겼답니다. 사진 촬영 후 확대해 보면 그 잔털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하지요.

4

5

6

5, 6

모래게의 집짓기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 여린 발가락으로 모래를 모으고 모아 지상에 올려놓기까지 과정을 생각하니 얼마나 조심스레 백사장을 걸어야 하는가 감상에 젖어 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는 말에 공감할 뿐입니다.

제비꽃은 '성실과 겸손'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데요. 제비가 돌아오는 봄에 피는 꽃이며, 봄날 우리나라 산과 들에 가장 흔하게 피는 꽃입니다. 서양에는 제비꽃에 얽힌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데, 나폴레옹이 제비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에는 '제비꽃 소대장'으로 불릴 만큼 좋아했는데, 동지를 확인하는 표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군요.

7

8

7, 8

어느 한 곳에 몰아두지 않고 사방에 골고루 모래구슬을 옮겨두니 그 길마다 불꽃놀이 모양을 하고 있네요. 모래게는 아름다움을 연출하여 지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밟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생명 앞에서 감상에 감상을 거듭하며 마음을 맑게 다스려 봅니다.

사진 속 야생화는 '흰앵초'라고 부릅니다. 봄날 사진작가들을 흥분케 하는 매력을 지닌 꽃인데요. 보면 볼수록 앙증맞고, 마음을 정화해 주는 소중한 꽃이지요.

9

9

모래게의 향연에 취해 사진을 찍고 있는데, 큰딸내미가 백사장에 글씨를 썼습니다. '2017 울 가족 파이팅!' 너무나도 버겁고 무거운 시국 속에서 우리 모두가 파이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힘을 모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저 백사장에 모래게도, 저 산야에 야생화도, 그리고 우리네 사람들 모두모두 2017년 파이팅입니다.

글 **권순욱**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귀촌 1년, 텃밭에서 녹색 정감을 걸우며

이웃 농부의 손을 빌려 밭갈이를 한다. 트랙터가 밭 둘레를 시계반대 방향으로 빙빙 돌아 밭 중심에 다다르니 한 벌 밭갈이가 끝이 난다. 그러고서 밭 상단에서 하단으로 한 번 더 로타리한다. 이른 아침 시간을 이용해 밭갈이를 마친 것이다. 수주일 전에 퇴비를 뿌려놓았는데 비가 내려 땅이 질벅거리므로 물기가 마르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파종 시기가 빠른 작물순서대로 소개토록 한다.

감자

3월 중순 싸늘한 날씨에, 맨 처음 작물 심기는 감자였다. 90센티미터 폭 이랑을 만드는 일이다. 밭고랑이 만들어 질 자리에 새끼줄을 늘어뜨리고 이 줄을 따라 삽질해 이랑을 만드는 것이다. 10평 남짓 감자 밭이랑 만들기를 마치고 이랑 위에 비닐 덮어씌우기 하면 감자심기 준비가 끝난다. 비닐 피복은 잡초를 줄이고 땅 온도를 높이며 수분 증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닐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웃 어르신이 일을 돕겠다고 했다. 어르신은 괭이자루 끄트머리 뾰족한 부분으로 비닐이랑을 콕 찔러 씨감자 넣을 구멍을 만들어 주었고 나는 바가지에 씨감자를 하나씩 구멍에 집어넣고 모종삽으로 흙 한 움큼의 량을 덮어 나아갔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01 감자
02 상추, 완두콩
03 토마토

상추

늦봄부터 여름 내내 음식의 필수 잎채소 쌈의 재료 상추 씨앗뿌리기이다. 1.2미터 폭으로 땅을 닦달하고 씨앗을 곧뿌림한다. 즉 씨앗을 흩어 뿌리므로 작물이 빈 공간 없이 자라 땅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4일이 지나면 싹이 트는데 본 잎이 5~6장 나오면 솎아 먹는 것이다. 상추 곁에 열무, 아욱, 쑥갓, 부추, 토란 등의 채소를 심어 상추쌈에 곁들여 먹는다.

토마토

열매채소는 모종을 옮겨심기 한다. 오이 모종 한4그루를 두자 간격으로 심고 지상에 삼각 모양의 섶을 만들어 세우면 오이 줄기가 쭉쭉 뻗어 올라 덩굴을 만들고 잎겨드랑이마다 노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토마토 모종 한10그루를 심고 모종 밑동에 지지대를 박아 세워 묶어 키우면 맛있는 토마토를 맛볼 수가 있다.

마디호박

반찬으로 쓰는 마디호박 모종 3그루 정도 밭 들머리에 심어 놓으면 덩굴을 짧게짧게 뻗으며 마디마디마다 타원형 애호박이 달린다. 꽃이 핀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씨가 생겨 먹기 곤란하게 되므로 적기에 따 먹으려면 적당량을 심어야 한다.

대파

대파는 한100포기 정도의 모종을 심어 기른다. 이랑 간격 75센티미터 포기간격 5센티미터로 심되, 이랑 남쪽 벽에 붙여 심는다. 대파는 육류나 생선으로 조리 할 때 꼭 들어가야 얼큰하고 비릿한 냄새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겨울 내도록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이다.

옥수수

하순에 옥수수 모종을 밭 둘레에 드문드문 심는다. 옥수수수염 끝이 암술머리에 해당한다. 줄기 끝에 피뢰침처럼 우뚝 솟은 건 수꽃이다. 수꽃은 먼저 피어 찰랑찰랑 바람 종소리를 내며 암꽃이 피기만을 기다렸다가 수정하고 수염 한 올에 씨알이 하나씩 달린다.

01 마디호박, 오이 **02** 밭 이랑 **03** 대파

옥수수는 한 그루에 서너 자루가 달리는데 빨간 수염이 갈색으로 탈색되기 직전에 먹기에 가장 좋다. 더러는 다른 꽃에서 날아온 꽃 밥으로 한 번씩 엉뚱한 색깔 식구가 생겨 얼룩 강냉이가 되기도 한다.

땅콩

땅콩은 씨 뿌림 하는데, 90센티미터 이랑으로 두둑을 만들고 검정 비닐을 깔아 그 위에 두 줄로 포기 사이가 30센티미터 되게 씨앗 서너 알 정도를 묻는다. 나중에는 두 대 정도 남기고 솎는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면 도톰히 살찐 떡잎을 내민다. 땅내를 맡기 시작한 지 오래되어 새파랗게 채색되었을 때 포기 주위 비닐을 약간 찢어 주면 씨알이 맺는데 도움이 된다.

가지

5월 초순, 가지 모종 한2그루를 심는다. 심어 놓고 잊은 듯 지나다 보면 주렁주렁 달린다. 식구 수만큼 심는다. 꽃 봉우리마다 허실 없이 열매가 맺으므로 많이 달린다. 가지 밭 옆에는 야콘 서너 포기를 심고 퇴비하여 가을에 간식으로 달콤한 맛을 즐긴다.

수박

수박 6그루를 심는데, 모종 간격 80센티미터 정도로 한다. 바람에 덩굴이 날리지 않게 덩굴손이 나오는데, 덩굴이 네 마디 정도 뻗으면 그 끝을 곁가지 서너 개를 키운다. 수박을 곁가지 순에 맺게 하는 것이다. 참외는 수박 모종 심기와 같이 파종하고 원줄기 네다섯 마디에서 자르고 나오는 순을 아들 순이라고 한다. 이순을 다시 자르면 손자 순이 나오고 증손, 고손으로 이어진다. 참외는 손자 순부터 달리는 것이다.

이랑 만들기

4, 5월에는 고구마, 고추, 참깨, 콩 이랑 만들기 작업한다. 3자 정도 폭으로 이랑을 만드는데 감자이랑 만들 듯이 일을 한다. 작업량이 많다. 작업 첫날은 힘에 부쳐 몇 이랑을 만들지 못했지만 둘째 날부터는 이력이 생겨 며칠 동안 삽질 해 200평 땅 이랑 만들기 작업을 끝낼 수가 있다. 그다음 검은 비닐 덮기 해 작물 파종준비를 마친다.

고구마

5월 중순 고구마 모종을 심는다. 고구마는 그 옛날 보릿고개에서 배고파 허덕이던 우리 명줄을 이어 준 일등공신으로 구황 작물의 대표적 식물이다. 3자 정도로 이랑을 높게 두둑을 만들고 바로 검정비닐을 덮어씌운다. 비닐 위에 꼬챙이로 깊게 구멍을 뚫고, 한 뼘 간격으로 고구마 싹을 비스듬히 하나씩 꽂는다. 흙을 다독거리기 전 구멍에 물을 주면 활착이 빠르다. 며칠 시름시름 땅 몸살을 하다가 땅 내음을 맡으며 고무줄 같은 탄성으로 뻗어 나간다. 이랑과 고랑을 다 덮을 정도로 잎줄기가 무성해지면 덩굴을 들어 올렸다내려 잎줄기마디에서 새 뿌리가 내리는 걸 막아야 고구마 뿌리가 굵어진다. 여름에는 잎줄기를 채소용으로 따 먹을 수 있다.

고추

5월 중순, 고추모종을 심는 일이다. 구입한 모종이 시원치가 않았다. 고춧잎이 시들시들 할 뿐만 아니라 본 잎이 두세 장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모종이다. 모종 옮겨심기하면서 걱정을 했지만 잘 자라주었다. 밭이랑 양쪽 끝 땅바닥에 막대기를 하나씩 든든히 박아세우고 고추가 자라는 이랑에 양팔 간격으로 막대기를 하나 더 박아 세워 줄을 늘어뜨려 묶어주면 고추 싹이 이 줄에 의지해 쓰러지지 않는다.

참깨

참깨는 파종기로 씨앗뿌리기 한다.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씨앗이 싹터 소복 소복이 땅위로 올랐다. 참깨는 씨 세우기가 까다로운 작물이라고 한다. 씨 세우기란 씨앗을 뿌려 어느 정도 크기까지 모종을 길러내는 것을 말한다. 본 잎이 두세 장일 때 솎아 마지막으로 두 대를 남기고 뿌리가 상하지 않게 흙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한다. 즉 한 포기에 두 대가 자라는 것이다. 참깨가 어느 정도 자라면 고랑에 들깨모종을 심고 참깨를 찐 다음에 들깨 밑동에 흙을 채워 준다. 참깨에는 늘 들깨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메주콩

6월 초순에는 메주콩을 심는다. 뾰족한 호밋날을 20센티미터 간격으로 이랑 땅바닥에 찍어 호밋자루를 당기면서 누르면 호밋날 뒤에 좁은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에 씨앗 서너 알을 집어넣어 심는다. 심은 지 일주일이 지나자 떡잎이 뾰족하게 흙을 뚫으며 땅위로 올라오는데, 맨 먼저 낌새를 알아차린 건 산비둘기이다. 본 잎이 네댓 장 펴 자랄 때 까지 일삼아 쫓느라 애를 먹었다.

수수

수수씨앗을 뿌린다. 수수는 옥수수 모종 심은 사이에 씨앗을 두세 알씩 한 뼘 간격으로 점뿌림 한다. 수수는 바람에 뒤뚱거리면서도 달이 차니, 이내 이삭을 밀어 올리느라 분주해진다. 출렁출렁 춤을 추면서 씨알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수수를 잘 키워, 이삭대로 비를 만들어 쓸 생각이다. 방비는 이삭이 여물기 전에 뽑아서 쓰고, 마당비는 알곡을 떨어내고 남는 빈 이삭대로 만드는 것이다.

손바닥만 한 땅뙈기만 있어도 봉숭아나 채송화, 상추나 고추를 심고 싶어 하는 건 유순한 사람들의 본능이 아닐까? 현대인은 이런 본능까지 억압당하면서 지방질로 몸피만 불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삶을 다이어트 하는 데는 알칼리성 텃밭이 최고다. 전원생활이라기보다는 텃밭 생활이라 하는 게 더 어울릴 듯 싶다.

우리 모두가 텃밭을 갖게 되면 세상 모두가 녹색 정감으로 더욱 아름다워지리라.

– 농작물 수확의 기쁨은 다음호에 개재합니다.

글 **조삼래** 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교수 / 정책연구위원

봄의 전령 노랑할미새

Motacilla Cinerea

대청호의 사계를 경험해본 이라면 분명 그안의 생태계가 궁금해질만 하다. 다양한 생명체가 터를 일구는 환경, 그 생태계를 살짝 엿보면서 대청호주변환경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움트는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고자 이번호부터 '대청호생태이야기'를 연재한다. 우리 단체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필진의 논의에 따라 다양한 지면이 할애될 예정이다.

호수나 냇가의 두꺼운 얼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봄 (2월말 또는 3월초)이 되면 시골 냇가나 사찰 근처의 지붕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시끄럽게 지저귀는 새가 있다.

겨울에 동남아시아, 필리핀, 중국 남부 지방에서 월동을 하고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노랑할미새(Motacilla cinerea)가 그 주인공.

이 새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라시아내륙, 중국북부, 만주, 일본 등지에서 번식한다. 분류학적으로 참새목 할미새과에 속하며, 이른 봄에 우리나라를 찾아 와 번식하고 가을까지 시골의 냇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름철새다.

특히 이른 봄 대청호 상류인 충북 옥천군의 지오리 습지근처의 냇가에는 노랑할미새가 짝을 찾기 위해 시끄럽게 지저귀며 날아다닌다. 한마디로 산간계곡의 정적을 깨는 봄 전령의 대표적인 새라고 할 수 있다.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주로 주변의 높은 마무 꼭대기, 지붕, 전깃줄, 바위 등에 주로 앉아 노래한다. 날 때에는 파도형의 곡선을 그리며 수면에 닿을 듯 말 듯하며 나는 모습은 시골 냇가 위를 비행하는 다른 새와 구별되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에는 노랑할미새와 같은 시기에 와서 번식하는 알락할미새(Motacilla alba) 그리고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백할미새(Motacilla lugens)나 검은등할미새(Motacilla grandis) 및 나그네새인 긴발톱할미새(Motacilla flava) 등이 도래한다.

할미새류는 지역에 따라 색깔이나 형태 등이 다양한 지역적 아종이 있다. 노랑할미새는 등과 머리 윗쪽이 청회색이고 배 부위는 연노랑색을 띤다. 외형은 암 · 수가 비슷하지만 수컷의 목 부위는 까맣고 흰색의 뺨 선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겨울에는 암수 모두 목이 흰색이다. 발은 황갈색이고 부리는 가늘고 짧으며 꼬리

기다란 꼬리를 깝죽깝죽~
나풀나풀~ 흔들흔들~
수면에 닿을 듯 말 듯
파도형 곡선을 그리며 날다

노랑할미새의 수컷은 번식기가 되면 미리 둥지 지을 장소를 마련해 놓고 주변의 냇가 주변을 분주히 날면서 암컷을 유혹한다. 이 때 신혼집이 맘에 들거나 수컷의 노래 소리가 맘에 들면 암컷은 수컷의 사랑고백을 받아들여 짝을 맺게 된다. 노랑할미새는 번식기 동안 번식지 주변의 계곡이나 냇가 등지에서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수컷은 알품기와 새끼기르기 등 육아를 공동으로 책임진다. 알을 낳는 시기는 4월~8월경까지이며 가는 풀뿌리나 나뭇가지, 나뭇잎, 마른풀, 나무껍질, 이끼류 등과 흙을 이용하여 밥공기형태의 둥지를 짓는다. 둥지는 보통 인가의 처마, 바위나 건물틈새 그리고 계곡의 벼랑 등에 짓고 한 배의 약 5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약 2주정도 포란 기간을 거쳐 부화되고 그 후 15일 정도 자라면 둥지를 떠난다. 둥지를 떠나서도 약 2~3주간은 가족단위로 생활한다.

먹이는 물가에서 서식하는 하루살이목, 날도래나 강도래목, 파리목의 유충과 성충, 나비목의 유충 등 각종 수서 곤충이나 거미류 등을 즐겨먹는다. 이 새는 수질이 오염된 곳을 싫어하며 언제나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는 곳을 좋아한다.

최근에는 수질오염과 무질서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량감소 등으로 계곡의 하천 등이 건천화되고 하천변을 따라 건설되는 각종 위락시설이 산 계곡까지 들어서면서 노랑 할미새들이 살아가야 할 서식지가 감소되고 있다.

가 다른 새에 비해 길은 편이다. 노랑할미새는 (물론 다른 할미새류도 비슷하지만) 언제나 기다란 꼬리를 깝죽깝죽 흔들어 대는 버릇이 있다. 먹이를 먹기 위해 걸어서 이동 할 때나 비행한 후 건물이나 전선 등에 앉을 때에도 언제나 꼬리를 나풀나풀 거리며 엉덩이와 함께 아래, 위로 움직이는 모습이 재미있다. 그래서 노랑할미새의 학명인 "Motacilla cinerea" 라는 이름도 라틴말로는 "꼬리를 움직인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우리말의 노랑할미새는 과연 어떻게 붙여졌을까? 얼핏 생각 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새의 행동은 꼬리를 까닥까닥 거리는 특징이 있으며 마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걷는 모습과 비슷하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새'에서 '할미새' 또 색깔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랑할미새'…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 할 수 있다.

2017년 달라지는 환경정책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오염토양 정화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처리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을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한다. 또한 부지면적을 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부지 면적으로 적용토록 하며, 2017년 1월 시행토록 한다.

◇주요내용 :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 관련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

① 오염토양 반출정화 요건 완화(200제곱미터 미만 → 300제곱미터 미만)

② 부지면적을 여러 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부지의 면적으로 개념 명확화

위해우려제품 안전 · 표시기준 강화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독성물질의 인체흡입 등 노출우려를 차단하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은 전(全)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주요내용 :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추가 및 안전표시기준 강화

① 위해우려제품 3종 신규 지정(인쇄용 잉크, 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

② 안전 · 표시기준 강화(CMIT/MIT의 스프레이형 제형 사용금지, 표시사항 추가)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 · 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 지난 22년간 빈병 보증금은 현재 물가와 동떨어지게 인상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는데, 2017년 1월부터는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보증금 인상 전 · 후 빈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사용표시의 크기 또는 색상이 변경된다.

◇ 주요내용 :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5.1) ·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액 인상 ·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증금 인상 전 · 후 빈병구분

① 빈용기보증금액 인상(소주 40원→100원, 맥주 50원→130원)

② 재사용표시 크기 또는 색상 변경(150%이상 확대, 붉은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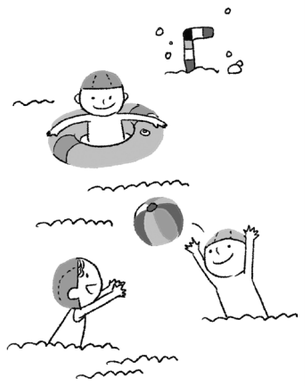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8시간으로 완화

유해화학물질 운반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2년마다 16시간 이상 받아야 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으면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수 있다. 단,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①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으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 가능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및 관리기준 도입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한 물놀이시설 수질관리기준 도입, 국가 ·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 · 운영하는 시설(민간위탁 시설도 포함) 민간에서 설치 · 운영하는 시설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 주요내용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17.1.28부터)

②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도입 · 적용

: pH(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L), 수질검사(1회/15일)

: 수심 30㎝ 이하 유지, 부유물 · 침전물 제거 및 저류조 청소, 용수 여과 및 소독,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카드 작성 · 보관 등

③ 수질 및 관리기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2017년 1월 28일부터 산업단지 · 농공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주요내용

① 모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② 기술진단 의무대상 시설이 기술진단을 정해진 기간 내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류(녹조) 피해예방 조치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

조류(녹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의 대상을 기존 호소(호수 등 물이 가두어진 곳)에서 하천까지 확대된다.

◇ 주요내용

①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를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내 비점오염원, 법적 대책으로 체계적 관리 추진

국내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68%의 비중('10년, BOD기준)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에서 관계기관의 이행실적을 매년 취합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 강화 · 보완을 요청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기반이 마련된다.

◇ 주요내용

① 종합대책 수립(5년마다)

– 관계기관 소관별(도시 · 농촌 · 산림 등),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 제출

– 환경부는 전문적 · 기술적 검토를 통해 종합대책 확정

② 이행실적 평가 · 보완

– 관계기관의 소관별 대책의 이행 결과를 매년 환경부 장관에 제출

– 환경부 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완 · 강화하도록 요청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하여 수돗물의 수질 및 위생수준이 강화된다.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평가한 인체위해도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허용 위해수준의 약 1/10로 나타나, 선제적으로 위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질기준으로 추가되었다. 수도사업자는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새롭게 설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5만 톤/일 이상 정수장에 대하여 월 1회로 수질 검사를 강화하여야 하고, 2018년부터는 모든 수도시설로 검사를 확대한다.

◇ 주요내용

①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화

② 2017년 1월1일부터 5만톤/일 이상 정수장부터 적용, 월1회 수질검사 시행

글 **이성숙**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부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
16차 정기총회 성료

비점오염원 저감 실천운동 강화
원활한 소통력 ~ 민·관협의 확대

쌀쌀한 바람사이로 따스한 봄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던 지난 2월10일 오후2시, 옥천다목적회관 5층 대강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이사장 윤여표 충북대학교 총장) 16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금산네트워크 하천감시단원들의 첫 방문을 시작으로 대청호보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총회원들의 참여가 속속 이어졌다. 대청호 상류부터 하류지역까지 대청호유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함박웃음이 우리단체 정기총회를 더욱 빛내주기에 충분했다.

한해의 노고를 격려하는 다채로운 시상식

정기총회 시작 전, 2016년 한해동안 열성을 다해 진행되었던 주민참여 수질개선 실천활동, 이색적인 대청호환경교육, 상하류 도농교류 생활공동체운동, 하천감시조사활동 및 현안대응, 환경캠페인, 대청호 영화제 및 문화예술거리, 정책연구활동, 금강소유역 협의회 시범운영 및 실천활동, 서화천 가축분뇨적정처리 실천활동 등 다채로웠던 대청호보전운동이 활동영상을 통해 전달되면서 모두 함께 한해를 되돌아보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이어 시상식으로 준비된 1부행사가 천안아산네트워크 공정해 대표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한해동안 대청호보전을 위에 애써주신 분들, 특히 긴 시간동안 우리단체의 이사로서 의사결정의 무거운 중책을 맡으면서 대청호보운동에 헌신해온 대전네트워크 이동규 대표, 청주네트워크 박재인 대표, 한경수 집행위원장에게 각각 공로패가 수여되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대청호지킴이상은 주민부문에 정수복 영동네트워크하천감시단, 박홍순 옥천네트워크하천감시단, 김현철 보은네트워크하천감시단, 이재용 대전네트워크하천감시단, 육상희 금산 용화리장, 함정희 청주네트워크 회원마을주민 등 6명이 각각 수상했으며, 시민사회단체부문에는 네트워크의 유대관계 강화에 힘써온 무주 푸른꿈고등학교 교사 이무흔씨, 이상욱 옥천네트워크 전 사무국장, 권만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운영위원, 송태호 청주팔백리 대표가 각각 수상하였고, 기관부문에는 그동안 민관협력운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아끼지 않은 김진수 영동군 환경과 수계관리팀장이 수상하면서 영예로운 시간이 마무리되었다.

더불어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연대사업국장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를 담은 10년근속상을 수상하면서 많은 회원들로부터 응원의 박수를 받았다.

본격적인 총회에 들어가기 앞서, 영동네트워크 배임식대표와 변기원 회원의 섹소폰과 클라리넷 향연이 연회장을 방불케 하는 등 한층 분위기를 고조시켜 많은 박수갈채를 자아내기도 했다.

2017년 대청호유역공동체를 위한 시작

오후 2시30분, 우리단체 윤여표 이사장의 진행하에 총회원 152명 중 9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이성숙부장이 보고하면서 본격적으로 16차 정기총회가 시작되었다.

대전YMCA 전홍수 회원이 서기로 선출되었고, 의장이 회순을 제안하고 이의가 없어 그대로 통과되면서 임혜원 회원이 전차회의록을 낭독하였다.

첫 번째 의안1호는 이종형 감사의 보고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의안2호의 2016년도 사업 및 재정보고 승인의 건은 이건희 사무처장이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체 사업과 재정을 보고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이어 정세채 공동사무처장이 의안3호인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통합으로 인한 조항삭제, 수자원공사의 명칭을 K-wate로 수정하는 사항, 사무처장의 임기를 연임으로 제한하는 규정 등 정관개정사항임을 설명하고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의안4호 임원선출의 건도 원안 그대로 승인되면서 신임임원의 간략한 인사가 이어지기도 했으며, 의안5호인 2017년 사업 및 재정계획안 심의까지 마치는 과정에서 정책연구위원회 연구활동의 심도있는 진행과 네트워크 활동가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제안이 도출되면서 이후 이사회에 위임하여 세세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되었다.

한편 윤여표 이사장이 기타 안건 여부를 질의하자 총회원들은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16번째 정기총회 폐회가 선언되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청호가 맑은 빛 1급수로 되살아나는 그 날을 기약하며,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기념촬영을 통해 대청호 파이팅을 우렁차게 외치며 최종 마무리되었다.

대청호유역
하천센터
'현안을 짚다'

대청호유역하천센터의 2016년을 돌아보며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지난 한 해에도 금강과 대청호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부설기관인 대청호유역하천센터는 지난해에도 대청호 상류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천감시조사활동을 펼쳐왔다. 2016년에는 금강하천감시센터의 명칭이 '대청호유역하천센터'로 바뀐 첫해였다.

2016년에도 각 지역 하천감시단의 자발적 활동이 모범이 되었다. 금산, 대전, 무주, 보은, 영동, 옥천, 청주에서 123명의 하천감시단이 매월 하천감시 및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하천감시단의 활동은 보수가 거의 없는 자발성에 기초한 자원봉사 활동에 가깝다. 하천으로 자주 나가서 하천감시 및 계도활동을 하는 감시단들도 있고,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기도 하고 면사무소 등에 수거처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하천감시단의 이름에 맞게 열심히 활동해주신 분들이 있기에 그 이름이 더욱 빛난 한 해가 되었다.

지난해에는 하천감시단의 활동을 위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3월에는 하천감시단 발대식과 환경교육, 3~4월에 지역별 순회 환경교육, 8~9월에 지역별 하천감시단 하천현장교육을 진행하였다. 지역별 하천감시단 하천현장 교육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실시된 지역별 하천감시단 환경교육의 연장선 상에서 진행되었다. 봄에는 '금강 상류의 하천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하여 실내교육으로 진행되었다면 8~9월에는 직접 하천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하천생태계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하천의 구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하천에 서식하는 수서곤충, 어류, 조류, 식물 등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실내교육을 통해 공부를 한 것을 토대로 하천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면서 교육을 하였기에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각 마을에서 주민들과의 실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마을도랑과 마을 환경을 깨끗하게 하여 맑은 금강과 대청호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도랑살리기 사업, 마을의 환경비전 수립을 위한 교육,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은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에서 진행되었고 대청호 주변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군서면 월전리, 안내면 서대리, 이원면 신흥리에서 진행되었다. 마을의 환경비전 수립을 위한 교육은 지난 5월부터 준비하여 6~7월에 5일간 유기농업, 생태마을 만들기, 수환경 가꾸기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보은군 회인면 부수2리에서 실시되었고 보고서까지 제작되었다. 사업들을 통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인 실천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모범이 되었다. 마을과 도랑환경 개선으로 맑은 대청호 조성에 기여하였고 주민들의 환경의식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금강과 대청호 유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옥천군 군북면 계사 및 견사 관련 대응, 대청호 일원 수상레저 불법행위 대응, 보은군 수한면 질신리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대응, 옥천군 동이면 안터지구 부댐 건설 대응 등을 진행하였다. 대청호나 하천과 가까운 축사의 관리를 위해 옥천군과 협의하여 대응하였지만 행정 단속이 이뤄질 때만 잠깐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수상레저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의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은 질신리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문제와 옥천 안터지구 부댐건설 문제는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

2017년에도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더 활발한 활동으로 맑은 금강과 대청호를 만드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4차 회의 개최

우리단체 씽크탱크라 할 수 있는 정책연구위원회 4차 회의. 지난해 활동평가를 반영하여 올해 연구과제 및 환경현안모니터링, 정책토론회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4차회의가 지난 1월 16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정책연구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연구과제와 현안모니터링활동을 되돌아보며 상세한 평가를 한 후 2017년도에 어떠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할지에 대하여 보다 세세한 논의를 펼쳤다.

지난해 4차례의 환경현안모니터링활동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았으므로 올해에도 대청호상하류의 환경현안을 발굴, 직접 현장탐방 및 해당관계자 간담회를 중점 진행키로 합의되었으며, 더불어 중장기 대청호의제발굴 연구과제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현안모니터링 접근방법에서 소수의 인원과 적은 비용으로 대청호환경현안탐방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상지 취약지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수질(수생태) 기반으로 취약지를 찾아내고 그곳을 집중모니터하자는 의견과 더불어 우리단체에 속해있는 집단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현장)와 내용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가급적이면 전략사업과 관련된 또는 공통사업과 연관된 주제를 선정하자고 의견이 모아지는 등 모니터링방식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를 포함한 환경현안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에 위원들의 참여율이 3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좀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사무처

4차 확대이사회 개최

정기총회 전에 개최된 확대이사회. 이사 및 집행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한해의 활동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지난 2월3일(금) 오전 10시30분 대청댐물문화관 회의실에서 4차 확대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논의했다.

윤여표 이사장의 주재하에 정관개정안, 운영세칙개정안, 임원인선안, 2017년 사업 및 재정계획안, 신규회원단체 가입 건 등을 심의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업 및 재정감사에 대한 보고와 2016년도 사업 및 재정 중심으로 세부적인 보고가 이루어졌고 2월1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많은 총회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축하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월의 대청호로컬푸드 직거래장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1층에서 대청호로컬푸드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지난 2월8일(수) 열린 대청호로컬푸드장터에서는 대보름을 맞이하여 온갖 오곡백과 물품이 풍성하게 진열되었다. 영동에서는 시래기를 삶고, 옥천 산계리는 혼합잡곡, 청원 두모리와, 옥천 도덕리에서는 각종 묵나물과 부럼을 준비해왔다. 일년내내 나오는 금산의 싱싱한 유기농 쌈채와, 옥천의 두부와 콩나물, 청원 도원리의 장아찌류는 장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품목이 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의 밥상에 건강을 선물하기에 충분하다.

대청호해설사 전체회의

우리단체 소모임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는 대청호해설사들의 월례회의가 지난 1월17일 대전교육정보원 교육실에서 진행되었다.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영애 회장의 주재 하에 진행된 해설사 전체회의에서 임원진 선출 및 2017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올해 임원진으로는 윤영애 회장, 김재식 부회장이 연임되었으며, 이순덕 해설사가 새로이 총무역할을 담당키로 확정되었다. 더불어 대청호체험물사랑지킴이단 운영책임자에 박천영 해설사가, 찾아가는 물환경교실 운영책임자에 김영임 해설사가, 주니어생태해설가양성교육 운영책임자에 박이경해 설사가, 환경동아리운영 및 대시민환경캠페인 운영담당에 윤영애, 김재식 해설사가 각각 확정되면서 각 영역별로 활동스터디를 진행키로 협의함에 따라 매주 수요일마다 빠짐없이 현장탐사활동 및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청호상류마을환경교육팀은 현재 대청호주변 습지탐사와 아울러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며, 주제별 교안작성에 돌입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물환경교실운영팀은 기존의 물절약 및 수질오염예방에 대한 교안을 수정보완하는 것은 물론 보다 재미있고 체험활동 위주의 교안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대청호해설사는 2006년 1기 양성교육을 시작으로 격년에 1회씩 진행되었으며, 현재 5기까지 양성된 가운데 20여명의 현장강사진이 포진되어 각 주제별, 분야별 대청호생태환경교육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우리단체 소모임인 대청호해설사 회의가 매월 세 번째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옥천 신설장계대교 대청호위에 연결

옥천 안내면 신설장계대교 고량이 대청호위에 연결된 모습. (제공: 대전일보)

옥천에서 가장 높고 긴 신설장계대교가 대청호위에 연결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옥천 군북면 소정리–안내면 인포리 국도 37호선 5 · 3㎞ 확장구간에 계룡건설(주)이 건설중인 장계대교다.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 교량은 길이 420m, 높이 54m, 폭 21 · 2m로 옥천 안내면 장계리–인포리를 연결하는 옥천관내 교량중에서는 최대규모다.

옥천–보은지역까지 3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도 37호선 확장공사는 당초공기인 2009년 4월–2019년 3월 기간보다 앞당긴 2018년 12월 말 완공계획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청 댐 건설로 30여 년간 수몰주민들의 애환을 간직한 대청호란 큰 호수 위에 또 다시 커다란 장계대교가 신설되며, 바로 옆 구도로 기존 장계교(1980년 건설)와 함께 쌍둥이 교량으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옥천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회사측은 이 교량을 건설하면서 대청호가 가장 큰 난제였다. 수심 20m 수면 위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 위험부담과 공사구간은 대청호를 매립해야 하는 어려운 공정 때문에 장마철 대청호수심이 올라가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등 어려운 난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 이에 수면 위에서 교량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FCM(Free Cantilever Method)이란 특수공법을 도입, 균형을 잡아가면서 교량을 이어 나가도록 하는 공법으로 물속, 계곡, 고속도로공사에서 사용되는 공법이다.

장태화 현장소장은 "대청호수면 위에서 건설해야 하는 어려운 난공사 끝에 교량연결공사가 마무리돼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며 "완벽한 시공으로 준공마무리까지 안전에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육종천기자 2017–1–26 skybell1910@daejonilbo.com

대청호 '꽁꽁' …공기부양정 타고 '씽씽'

꽁꽁 언 대청호 얼음위를 달리는 옥천 오대리 공기부양정 (제공 : 충북일보)

대청호 연안마을 옥천군 옥천읍 오대리는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린다. 험한 산과 호수에 둘러싸여 배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마을 10가구 14명의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2.1짜리 나룻배(철선)다. 생필품 구입부터 농산물 출하에 이르기까지 이 배를 타야 바깥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호수가 얼어붙는 겨울철에는 바깥출입이 곤란해진다. 뱃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날이 많아서다. 발이 묶인 주민들은 폭 500m의 얼음판 위를 맨몸으로 걸어 다녔다. 말 그대로 목숨 건 바깥나들이다.

위험을 보다 못한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2년 전 이 마을에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 Hovercraft)을 선물했다. 선체 밑에서 압축공기를 내뿜어 물 위나 얼음판 위를 자유롭게 오가도록 특수제작한 선박이다. 이 선박이 들어온 뒤 주민들의 겨울나기는 한층 안전하고 편해졌다. 위험천만한 얼음판 걷기가 사라졌고, 뱃길을 뚫기 위해 얼음을 깨는 모습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25일 전직 이장이면서 공기부양정 관리를 맡는 조병복(64) 선장은 "읍내 나가는 주민들을 태우고 나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청호는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였다. 하지만 최강 한파가 몰아치면서 불과 며칠 새 호수가 꽝꽝 얼어붙었다. 호수가 얼음으로 뒤덮였지만, 주민들은 예전처럼 발 묶일 걱정을 하지 않는다. 공기부양정을 타고 꽁꽁 언 호수 위를 마음놓고 질주할 수 있어서다.

권병학(70) 이장은 "예전에는 읍내 친척 집이나 자녀 집으로 거처를 옮겨 겨울을 나는 주민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런 풍경이 사라졌다"고 공기부양정이 몰고 온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겨울에는 꿈도 못 꾸던 성묘까지 가능해졌다"며 "이번 설에도 제법 많은 출향인이 조상 묘를 둘러보기 위해 마을로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조 선장은 '설 연휴 특별근무'를 계획하고 있다. 이른 아침 차례를 올리고 나면 마을 밖 선착장으로 공기부양정을 끌고 나가 성묘객을 맞는다는 계획이다. 그는 "오랜만에 고향에 오는 출향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24시간 출동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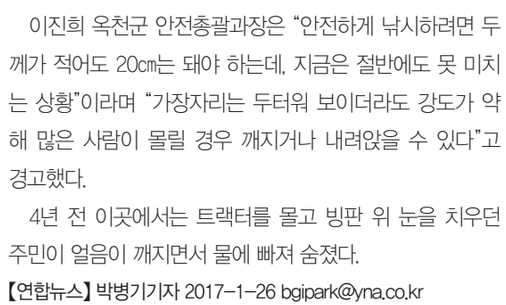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곳을 포함해 대청호 연안마을 2곳에 공기부양정을 배치했다.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2017–1–25 nearshon@hanmail.net

대청호 빙어낚시 '위험천만' … 한파에도 얼음두께 고작 8cm

– 20cm 돼야 안전…옥천군 설 연휴 공무원 16명으로 순찰조 편성

충북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 앞 대청호는 중부권 최대 빙어 낚시터다. 수심이 깊지 않으면서 빙어의 입질도 잦아 겨울마다 얼음판에 구멍을 내 손맛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마을 주민들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 달가량 빙어낚시와 썰매 등을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연다. 많게는 한 해 10만명이 축제장을 다녀가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포근한 날씨 속에 호수 결빙이 늦었다. 지난주부터 몰아친 강추위로 얼음은 얼었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축제도 이미 취소된 상태다.

지난 26일 옥천군이 측정한 호수 가장자리의 얼음 두께는 8㎝에 불과했다. 중심부로 갈수록 얼음이 얇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람 몸무게를 버티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호수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사람 접근을 막는 안전띠도 설치했지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군은 공무원 16명으로 비상 근무조를 편성, 매일 순찰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낚시꾼이 접근할 경우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해 비상 사이렌을 울리고, 안내방송도 할 예정이다.

이진희 옥천군 안전총괄과장은 "안전하게 낚시하려면 두께가 적어도 20㎝는 돼야 하는데, 지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가장자리는 두터워 보이더라도 강도가 약해 많은 사람이 몰릴 경우 깨지거나 내려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4년 전 이곳에서는 트랙터를 몰고 빙판 위 눈을 치우던 주민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

【연합뉴스】 박병기기자 2017–1–26 bgipark@yna.co.kr

대청호, 폐수 · 가축분뇨로 몸살

– 옥천 · 보은 · 영동군 작년 환경위반 88건 적발

대청호 상류지역인 옥천 · 보은 · 영동지역 기업과 축산시설의 무분별한 공해 배출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몸살을 앓고 있다.

보은 · 옥천 ·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해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하거나 폐기물 관리 부실로 환경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옥천 44건, 보은 28건, 영동 16건 등 88건에 달했다.

지난해 환경법을 어긴 업체(시설) 중 23곳을 고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조치됐다. 유형별로는 무단으로 폐수를 흘려보는 등 수질 · 수생태계보전법을 어긴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폐기물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경우도 19건과 17건으로 나타났다.먼지발생 등 대기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16건, 악취나 소음 배출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3건이다.

위반 사례 중에는 고의나 실수로 유류 · 화학물질 등을 강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흘려보낸 경우도 9건 적발됐다. 금강과 대청호 수계인 이들 지역 모든 하천은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곧바로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여름마다 '녹조'가 발생하는 등 대청호 오염의 원인을 꼽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대청호의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450일로 조류경보제가 시행되는 전국 하천 · 호수 22곳 중 가장 길었다. 2014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경보가 발령됐을 정도다.

옥천군 관계자는 "되풀이되는 홍보와 교육으로 환경의식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며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해 불법 공해배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매일】 윤여군기자 2017-1-8 yyg590@jbnews.com

금산 하수도시설 확충… 대전시민 식수 걱정 덜어

– 금산군, 190억 투입 … 대청댐 수질 개선

대전 시민들의 상수원인 대청댐 수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산군 전 지역에 대한 하수관 정비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금산은 대청댐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금산지역 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 대청댐 수질은 더불어 개선된다.

금산군은 내년까지 금산읍 전 지역에 대한 하수시설을 완료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202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80% 이상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군은 약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산읍 계진리 및 음지2리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18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금산읍 전 지역은 하천정화, 보건위생, 도시미관 등 3박자를 고루 갖춘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갖추게 된다.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부면 서대 · 성당2리, 군북면 호티1리 및 남일면 마장1 · 3리에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을 집행한다. 약 130억 원이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되며, 정주환경의 쾌적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금산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6%로 도내 3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78%까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2020년까지 금산군 하수도 보급률을 80%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트뉴스】 이정석기자 2017-1-20 nearshon@hanmail.net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대전 동구

4월1일, 물사랑대청호마라톤대회, 벚꽃길을 달린다

대전 동구(한현택구청장)는 마라토너들의 열띤 장이 될 2017년도 물사랑대청호마라톤대회를 오는 4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올해는 대회 개최 시기를 가을에서 봄으로 앞당겨 전국에서 가장 긴 26.4Km의 회인선 벚꽃길을 달리며, 멋진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 신상동 신상교차로 일원에서 개최되는 물사랑대청호마라톤대회 참가신청은 3월 17일까지이며, 동 주민센터나 대회 홈페이지(www.dcrace.com) 및 전화로 선착순 접수한다.

이번 대회는 대전 동구와 대전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구체육회, 대전육상경기연맹 주관으로 국내 마라톤 동호인 3천여 명이 하프코스, 10㎞, 5㎞ 부문에서 각자 우정과 화합을 다지며 '달리기로 건강 지키고 기부로 사랑 나누는 착한 마라톤 대회'로 힘찬 레이스를 펼친다.

지난해에는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정취를 느꼈다면 올해는 봄꽃 향기를 흠뻑 맡으며 대청호반의 또 다른 매력에 빠져 지친 심신의 여유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참가비 중 2천 원이 동구 대표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와 대전시체육진흥기금으로 자동 기탁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나눔 실천을 통해 뜻깊은 대회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농산품 · 중소기업 생산품, 자매도시 홍보 부스도 마련해 생산자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네일아트, 손마사지 등의 다양한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참가관련사항은 물사랑대청호마라톤대회 사무국(☎042-380-7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

천안시 환경위생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천안시 환경위생과는 올해 온실가스 줄이기, 유역관리 및 환경감시 유공으로 환경부, 충청남도로부터 기관표창 3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다.

시는 온실가스 3만3000톤을 감축하여 전국 최대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한 성과로 지난 6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전국 경연대회에서 환경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사업 녹색시범아파트 운영 △에너지 자립도 높은 아파트 만들기 △온실가스 감축 추진 종합계획 수립 △녹색식물 커튼도시 조성 △소형 태양광발전기 및 LED조명 지원사업 △신 · 재생에너지 설치사업 △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지정운영 △기후변화 체험사업 등을 추진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유역관리 및 환경감시 분야에서 충청남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추진했던 △생태하천 △비점오염원 △가축분뇨 △기타수질오염원 △공중화장실관리 등 그동안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천안천 통합 · 집중형 수질개선사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업, 중점관리 저수지, 도랑살리기, 공중화장실 보급 및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통합적 물관리 및 환경감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청주에코콤플렉스 개관 등 이슈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미호천 상생 프로젝트' 1위

충북권 10대 환경뉴스의 첫 머리로 올해 활발하게 진행된 '미호천 유역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손꼽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단체와 행정기관, 언론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 지역내 환경관련 뉴스를 발표했다.

'미호천 유역 상생협력 프로젝트'는 세종시 조성과 통합청주시 출범이후 지역의 젖줄인 미호천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며 다양한 활동이 전개됐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미호천 상생협력 2020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백곡천과 무심천을 중심으로 하천돌봄이를 조직해 매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원지에서 합수부에 이르는 전 구간에 대한 종합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 및 옥시 불매운동'도 지역내 사망자와 피해자가 속속 들어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외에 생태환경 체험교육의 플랫폼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개관이 환경인들에게 손꼽히는 뉴스중의 하나다.

지난해 10월 문암생태공원에 개관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는 환경교육,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 전시관, 과학실험실, 생태공작실, 시청각교육실, 도서관, 토의실, 휴게공간과 사무공간, 연수동 등을 갖추고 생태도시 청주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켰다.

또한 △제천 폐기물매립장 복구와 조성을 둘러싼 갈등 △도시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논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충북행동 출범, 탈핵운동 본격화 △음성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 △청주 미세먼지 저감방안 모색 △멸종위기 양서류 보호를 위한 오송생태공원 조성 협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관련 갈등과 확정 등이 선정됐다.

그밖의 환경뉴스로는 보은 질신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악취 민원, 청주 서원대 백로 집단서식지를 둘러싼 갈등, 학교 · 하천의 우레탄 트랙 중금속 초과 확인 및 대책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물사랑 공모전 개최

대전시가 2017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사진과 그림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전시와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주관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피해, 물 절약 실천의 가치, 아름다운 물의 모습, 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주제로 열린다.

공모방법은 그림분야는 대전지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8절지 도화지로 1인 2점 이내, 사진분야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시민 대상으로 전자파일(pdf, jpg) 1인 5점 이내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대전시 중구 중앙로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이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 작품으로 그림 16점, 사진 3점을 선정해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시 환경부장관상, 대전시장상, 대전교육감상, 환경운동연합 의장상을 시상한다. 아울러, 최우수 작품 19점 외에도 뛰어난 작품으로 그림 100점, 사진 10점을 추가 선정해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시민대상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전관련 기타사항은 대전광역시 맑은정책과(042-270-5481) 또는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정유년 새해를 맞아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네트워크는 안전한 지역먹거리에 대한 인식 확산과 소비 확산을 위해 대청호 로컬푸드 레시피북을 발간했다.

대청호 유역의 농촌에서는 어렵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 왜곡된 유통구조 속에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농민에게는 안정된 판매처와 적정한 가격이 보장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도시소비자들은 제한적인 조건들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 소비가 어려운 현실이다. 대청호 상 · 하류지역의 유역 공동체는 지역민들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환경보전과 함께 상생의 유역 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거래, 즉 직거래 등으로 대청호 유역의 농촌과 도시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 연대하면서 떼어낼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가 된다면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것이며, 다가오는 수입 개방으로 인한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대청호 로컬푸드 이용으로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면 우리의 생명수, 대청호의 물 또한 더욱 맑고 깨끗해질 것이다.

〈대청호 로컬푸드 레시피북〉에는 이러한 지역의 사정과 상류 지역 농가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어 더 주목할 만하다. 대청호 상류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제철 농산물과 가공식품 이용을 촉진하여 농업을 지키려 애쓰는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며 더불어 대전충청인의 젖줄인 대청호를 살리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한다. 시민들이 대청호 로컬푸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용 확대해 가는데 레시피북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란다.

〈대청호 로컬푸드 레시피북〉은 대청호 로컬푸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전시민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문의(042-253-3241, 010-6485-3249)하면 받을 수 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무주 4-H본부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KYC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KYC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학교급식협의회,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장터 〉

매주 수요일은
대청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신뢰할 수 있는 생산자와 지혜로운 소비자와의 만남!
대청호 주변 친환경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직거래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대청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날!!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로 오세요~

일 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장 소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1층 로비

〈금강보호캠페인〉 가축분뇨 적정관리 요령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 빗물이 축사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수로, 방지턱을 설치합니다.
- 가축분뇨나 퇴비가 유실되지 않도록 가축 덮개시설, 퇴비사 시설, 도랑을 설치합니다.
- 가축분뇨를 초지나 경작지에 뿌릴 때는 작물의 흡수가 최대가 되는 시기에 우기를 피하여 살포합니다.
- 바뀐 가축분뇨법을 꼭 읽고 숙지합니다.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강~대청호 맑은물지킴이

“대청호 환경오염 어림없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하천감시단 발대식

일시 2017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소 옥천군 다목적회관 5층 대회의실

(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343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 **전화** 042)930-7340,1 **전송** 042)930-7342

홈페이지 http://www.daecheong.or.kr | **이메일** dch2004@naver.com